

2024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고린도후서

메시지 2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개선 행진 속의 포로들

성경: 고후 2:14 상, 요일 3:8, 히 2:14, 벧전 3:18-19, 계 1:18, 엠 4:8, 아 4:4

I.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이상을 가져야 한다 — 요일 3:8.

- A.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 가운데 광야에서 유혹받으셨을 때 사탄을 패배시키셨다 — 마 4:1-11.
- B.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제거하시고 해체하시고 파멸시키기 위한 것, 즉 육체 안의 죄를 유죄 판결하시고, 죄의 권세(마귀의 죄의 본성)를 멸망시키시고, 죄와 죄들을 없애시기 위한 것이었다 — 요일 3:8.
- C. 주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셨다. 그분은 사탄을 깨뜨리시고 무효화하셨다 — 히 2:14.
- D. 하나님께서는 악한 천사들을 공개적으로 수치 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 골 2:15.
- E. 그분의 신성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는 무저갱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사탄에 대한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셨다 — 벧전 3:18-19.
- F.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 계 1:18.
- G.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패배한 원수들의 행렬을 이끌고 가셨다. 그분은 우리를 사탄에게 포로 된 상태에서 구출하셔서 그분 자신에게 이끄셨다 — 엠 4:8.
- H.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전쟁에서 포로가 된 패배한 원수들의 행렬이 있었다 — 고후 2:14 상.

II.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며” — 고후 2:14 상.

- A. 고린도후서 2 장 14 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로마의 장군을 영예롭게 하는 행진을 은유로 사용한다.
  - 1. ‘이끌다’라는 동사는 개선 행진에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 2. 전체 문구는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이기고 개선 행진에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 B. 고린도후서 2 장 14 절 상반절에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 가운데 있는 그분의 포로들은 믿는 이들을 상징한다.
- C. 하나님은 원수들에 대한 그분의 승리를 축하하고 계신다. 복음을 몹시 대적했던 바울은 개선 행진의 대열을 따라가는 포로이다.
- D. 고린도후서 2 장 14 절 상반절에서 ‘우리’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고 그 승리에 참여하는 정복된 포로들을 가리킨다.
  - 1.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모든 사람은 그분의 권세와 권위 아래 있는 그분의 포로이다.
  - 2.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포로가 되어야 한다.
- E. 예수님께서 우리를 패배시키시고, 정복하시고, 굴복시키시고, 사로잡으셨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개선 행진 안에서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하면서 그분을 의지한다.
- F. 우리는 승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굴복시키시고 소유하시고 얻으셨다는 것과 이제 우리가 그분의 개선 행진 안에 있는 포로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을 갖는다면 이것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1.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굴복시키셨고 얻으셨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게 될 것이다 — 고후 2:14 상.
  2. 우리 자신과 관련하여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3. 포로는 이제 자신의 정복자를 위해 절대적인 사람, 즉 자신을 사로잡은 사람의 개선 행렬 안에서 행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 G. 고린도후서 2장 14 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포로라는 것을 가리킨다.
1. 다소의 사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경륜과 교회에 맞서 싸웠던 강하고 야심찬 청년이었다 — 행 9:1-22.
  2. 이전에 바울은 하늘에 속한 장군이신 그리스도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 패배당하고 굴복당하고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
  3. 사로잡힌 후에 그는 패배한 원수들의 행렬 안에 있는 포로 중의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 안에 있게 되었다.
- H. 교회에 필요한 이들은 영적 거인들이 아니라 작은 포로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주님, 저는 기꺼이 당신의 포로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 III. 우리의 의지, 사람의 의지, 자아의 의지는 정복되어야 한다 — 고후 2:14 상, 아 4:4.

- A. 사람의 의지가 신성한 의지 편에 설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 — 롬 12:2, 엡 1:9, 11, 5:17, 마 6:10.
1.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의지는 ‘키’와 같다. 키의 움직임에 따라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
  2. 한 면에서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다. 다른 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의지가 굴복되거나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대적자들, 원수들일 수 있다.
  3. 이기적인 의지, 이기적인 갈망, 이기적인 사상을 포함한 자아에 속한 많은 것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
  4. 우리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반역적인 요소가 있는지 모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패배당하고 정복당하고 굴복당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렬 안에 있는 포로로서 끌려 가야 한다 — 고후 2:14 상.
- B. “그대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 망대, 천 개의 작은 방패와 용사들의 큰 방패가 모두 걸려 있는 망대 같도오.” — 아 4:4.
1. 목은 하나님 아래 있는 사람의 의지를 상징한다. 주님은 우리의 의지의 복종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신다.
  2. 그리스도의 연인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의지(다윗 망대 같은 목)와, 방어 능력이 풍부한(작은 방패와 용사들의 큰 방패) 의지를 지닌 점에서 아름답다.
    - a. 우리가 복종하는 의지, 산기슭에 있는 염소 떼(아 4:1 하)와 같이 굴복된 의지를 갖는다면 우리의 의지는 공격에 대항하는 무기를 두는 다윗의 망대로 표현된다.
    - b. 그리스도의 연인은 자신의 타고난 의지에서 나와서 이제는 원수에 대항하는 부활한 의지 안에서 있다 — 엡 6:11, 13.
    - c. 우리의 의지가 굴복될수록 우리는 더 변화될 것이다 — 롬 12:2.
    - d. 먼저 우리의 의지가 굴복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의지는 부활 안에서 강해지고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고인 다윗의 망대와 같아질 것이다 — 엡 6:10.
    - e.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는 우리의 굴복되고 부활한 의지 안에 있다 — 고후 10:3-4.
    - f.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주로 원수의 마귀적이고 간교한 모든 공격에 맞서 방어하는 편에 있다 — 엡 6:10-20.
    - g. 원수의 화살에 대항하여 우리를 보호하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는 주님을 추구하는 이들의 굴복되고 부활한 의지의 망대 안에 지켜진다.